

광주시 생활속 공유문화 확산 나선다

4월 10일까지 공유축진 지원 사업 20일까지 단체·기업 지정 공모 지역자원 공유 생활 속 문제 해결

광주시는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2023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축진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는 ‘2023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2023년 공유축진 지원사업’ 등 2개로 나눠 진행되며, 2개 중 1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공유단체 및 기업지정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단체 및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와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지정된 단체 및 기업에 대해서는 광주시장 명의의 지정서와 3년간 공유 단체 및 기업으로 ‘공유광주 로고(BI)’ 사용권이 부여된다. 공유축진 지원사업은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광주시에 지정된 공유단체 및 기업으로 ▲사전 컨설팅 ▲서류 및 현장확인 ▲발표 심사 등을 거쳐 5-6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계획에 앞서 컨설팅을 통해 공유로 생활 속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 사업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공유 단체 및 기업 지정과 공유축진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단체·기업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해 방문 또는 전자우편(penggin83@kro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062-613-2652)로 문의 하면 된다. 최선영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마을 단위 일상의 동선을 중심으로 공공자원 공유를 연결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활 속 문제를 지역자원 공유로 해결하고 자발적 공유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단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50개의 공유단체·기업을 지정하고 총 77개 사업에 5억 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봄철 산불·해빙기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금지 축대·옹벽 등 이상 징후 신고

광주시가 봄철을 맞아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광주에서는 최근 10년 동안(2013~2022년) 산불 34건이 발생해 총 3.87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연간 산불의 47%가 3월과 4월에 집중됐으며, 특히 3월에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가뭄으로 건조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높은 상황이며, 이미 연평균 3.4건을 웃도는 5건의 산불이 발생한

상태. 산불은 눈·발 소각,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림 내 인화 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동하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광주시는 산불 방지·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체계 운영,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생활 속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감시와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미취업 청년 1인당 최대 20만원 자격증 취득비 지원

광주시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구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자 자치구와 함께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직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은 어학 및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1회에 한해 2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불한 응시료를 실비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광주시 2000명, 자치구 1500명 등 총 3500명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재학생 포함)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 자격 시험은 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오픽(OPIC), 텡스(TEPS), 지텔프(G-TELP) 등 어학 시험 5종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544종이다.

신청방법은 시험에 응시한 뒤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 사실 확인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www.gjyouthcenter.kr), 광주청년정책플랫폼(www.gwangju.go.kr/youth/), 광주 서구·남구 홈페이지, 북구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는 올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현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구직청년이 진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높이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금 55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광주시 59억원 투입

광주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중 예비사회적기업은 1~2년차 각 50%, 사회적기업은 1~3년차 각 40%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지원율의 20~30%를 추가해 70%를 지원한다. 최대범 광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상 50인 이하이다. 1인당 지원금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일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종류별 지원비율을 적용해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유치원·초등 1~2학년 어린이 기후·환경교육

광주시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광주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대응 어린이 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정 1층 기후위기대응 홍보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지구 환경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구를 아끼게 하는 법인 찾기, 탄소 중립 전래동화 구연, 홍보관 전시물 활용 탄소중립 실천생활 교육, 튜링 그림 찾기, 퍼즐 맞추기 등을 통한 기후행동 다짐 등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주제로 구성했다.

교육 신청은 매일 1일부터 20일까지 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온라인예약신청→바로예약→견학/체험→기후위기대응 어린이 환경교육)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교육은 필수”라면서 “어린이들이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대응홍보관은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31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 위해 오는 31일까지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참여업소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 및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증가 등에 따라 시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나트륨 저감 메뉴 보급에 관심 있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다. 1개월간 사전운영을 거쳐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기준에 맞는 업소를 최종 지정한다. 지정업소에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현판 부착 ▲염도계 및 위생물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에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39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과 급식소는 각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오월지기 36명 대상 5·18 스마트투어 앱 사용 교육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스마트투어’ 앱 활성화에 나선다. 5·18민주화운동 스마트투어 앱은 ‘그날의 현장에서 그날의 기록을 담아...’라는 주제로 사용자 혼자 스마트폰을 통해 5·18사적지를 찾아다니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다. 1980년 광주시민의 민주항쟁 기억이 숨쉬는 29곳의 사적지 콘텐츠 정보를 증강현실 스토리와 3

D북원, 위치기반 지도를 활용한 스마트해설가이드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광주시는 8일 5·18기념재단이 주최하는 5·18사적지 안내해설사(오월지기) 교육을 참여하는 오월지기 3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투어 앱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오월지기는 시민이 사적지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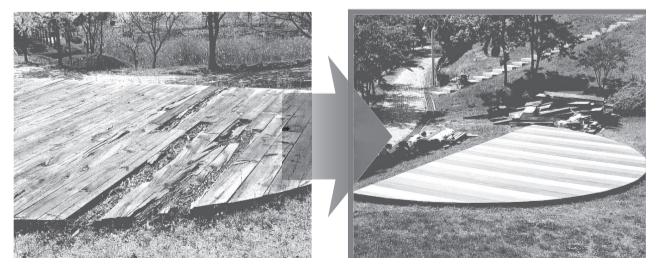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